

박종식(의대 52 년 졸업) 선배님 타계

향년 만 91 세이신 박종식 선배님은 지난 3 월 18 일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1952 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군의관으로 종군, 휴전후 군복무를 끝내고 도미하여 미국 동부에서 정형외과 수련과정을 마치고 Lima ,Ohio 에서 Dr.McBride 그룹에 합류하여 인술을 베푸셨다.

60 년전 동양인이 없었고 아주 보수적인 이 공업도시에서 선배님은 새로 정착하는 후배들에게 리더가 되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셨다. 아직 기력이 왕성한 1990 년대 초 은퇴 후 California 의 Laguna Niguel 에서 사시면서 지난 30 년간 중국, 한국땅에 기독교 선교사업에 기여하셨다. 성경에 바탕을 둔 경제적인 면의 올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을 알리기 위하여 크게 활동하시고 Southern California 미국 Rick Warren 선교와 한국 두레 기독교회단의 김진홍 목사와 초창기부터 관계가 깊었다. 한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룩한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한 부인 최영애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스피드 빙상선수)와 슬하에 Julia, John, Edie 2 남 1 녀와 많은 손자 손녀를 두셨다.

지난 1-2 년간은 혈소판이 관계된 노환으로건강이 나빠졌으며, 의료시설과 요양시설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늘 옆에 부인이 있어서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았다. 하늘의 뜻으로 3 월 18 일 자택에서 떠나실 때에도 부인이 섬배님의 여윈 손을 잡고 병상을 지켰다. 현재 인류가 당면한 코로나 사태로 조용히 준비된 가족묘지에 안치되었으며 사태가 호전되면 추모식이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동문 중에 가족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대졸업생만도 김경세(66), 차재철(68), 김경인(68), 배성호(71), 문대옥(73)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미국에 정착한 분들도 많고 의사로서 뿌리를 내린 2 세까지 합하면 50 명도 더 될 것이며 법조계등 다른 분야에도 수 없이 많다. 가깝게 지내시던 서울대 동문들로는 문리대 박윤수 , 농대 신동헌, 의대 고영철, 고 정진묵 님, 고 정낙섭, 공대 김해식, 의대 이태안 님 들이다. 선배님의 은퇴 전까지 밤낮으로 같은 병원에서 수십년간 전공은 다르지만 ENT 두경부외과를 하던 본인도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빌고 역경을 이기고 성취하신 훌륭한 선배님의 일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 드리고 싶다. (글; 서윤석)

